

日本の 등유수급안정대책

석유제품수입30% 감축, 원유정제한도 10% 확대

日本 정부는 휘발유, 등유 등 석유제품가격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금년 월동기중(10~3월) 값이 비싼 석유제품의 수입을 억제하는 한편 원유공급을 확대하여 정유회사의 증산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현재 중동사태의 여파로 국제석유시장에서 등유가격의 경우 원유에 비해 거의 2배나 폭등하고 있는데다가 값이 비싼 제품도입이 계속될 경우 국내 제품가격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日本 통산성·자원에너지청은 당초 석유공급계획에서 책정된 수준보다 석유제품수입량을 30% 정도 감축하는 한편 정유회사의 원유처리(정제) 한도를 10% 확대, 1억1천5백만㎏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또 등유의 성수기에 들어서고 있는 점을 감안, 한도확대분은 연내에 정제를 완료하도록 정유사에 요청하기로 했다.

지난 3월에 확정된 日本의 석유공급계획에 의하면, 금년도 하반기(10~3월)의 원유처리한도는 1억5백만㎏로 여기에 1천만㎏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중동위기 발생 직후인 지난 8월 중순에 상반기(4~9월) 원유처리한도를 확대, 당초계획인 8천7백만㎏에 3백60만㎏분을 추가시키는 형태로 정유사에 증산요청했기 때문에 연간규모로는 1천3백만㎏ 정도 원유처리한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월동기 日本의 석유제품수입량은 당초 국내수요의 20%에 해당하는 2천5백만㎏를 계획했으나, 對이라크 경제제재에 따라 국내수요의 3%에 해당하는 쿠웨이트로부터의 제품수입(연간 7백50만㎏)이 중단된데다가 중동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등유 등 제품의 수급이 타이트

해지면서 국제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싱가포르시장에서는 9월말 이후 등유가격이 중동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7월말에 비해 거의 3배나 폭등, 최근에는 배럴당 65달러 이상을 기록했다. 이는 겨울철 성수기를 맞아 한국, 일본 등의 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현재 日本의 석유제품공장도가격은 석유원매회사들이 원유와 제품 도입가격을 반영하여 결정하고 있는데, 고가의 제품도입이 계속될 경우 국내제품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에너지청은 우선 제품도입을 적극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日本 통산성·자원에너지청은 매년도말에 향후 5년간의 석유공급계획을 석유심의회석유부회(통산성의 자문기관)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있는데 이 계획의 연료유의 수요전망 휘발유, 등유, 경유 등의 석유제품의 생산량을 결정하고 있다. 다음해는 상하기로 나누어 정제에 필요한 원유량을 계산하여 처리한도를 결정, 정유회사에 할당한다. 금년 3월에 확정된 석유공급계획에 의하면 올해 연료유수요는 전년대비 3.6% 증가한 2억2천39만7천㎏로 전망했으며, 이중 제품수입은 4천7백72만1천㎏로 계획하고 있다. 에너지청은 석유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정유사의 원유처리한도에 대한 행정지도를 오는 '92년부터 폐지할 방침이다.♣〈滄〉

